

말씀의 샘

코람데오 <시편 11:4~7>

교회나 기독교소식지등을 통해, 아니면 설교를 통해 '코람데오'라는 말을 한두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뜻은 "코람(Coram)" 앞에 "데오(Deo)" 하나님,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Before God)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The presence of God)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창세기 6:11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역대상 13:7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
는 수레를 몰며 8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계시록 8: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믿음은, 때로 기초적인 믿음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아는 것과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모습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여호와와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는 모습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생활입니다.

마태복음 9:1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3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4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위 성경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버나움 한 동네의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마음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따라 발견된 자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현상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와 앉아있는지, 인식함, 귀찮음. 끝나고 어디 갈 생각, 혼자만의 고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입니까? 야곱이 벧엘에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현재성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처럼,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붓고 제단을 쌓고 헌신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경험되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 나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쩌면 찬양인도자의 찬양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찬양 같고, 끝나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예배 말입니다.

요한복음 4: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분의 눈을 인식하고 영감 있게, 현재성 있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경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헌신이 시작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촌출신이라는데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속마음과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하실 때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날 보셨다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고백을 믿음으로 이끕니다.

요 1: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뽕나무에 올라간 자기를 부르실 때, 자기의 이름을 아시고 자기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말에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는 결단의 힘은 하나님이 자길 아시고 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헌신하고 결단할 힘이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28:16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신다는 전율이 있을 때 진짜 살아있는 예배와 헌신이 있습니다.

창세기 28:18 야곱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20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1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옛 구습과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은 어쩌면 쉬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날 보신다는 전율과 감동이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경험을 통해 현실의 어려움도 이기게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도 있고 때로는 시험도 핍박도 있습니다.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위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창세기 31:41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이십 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사 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육 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42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20년간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삼촌 라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었던 담대함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보시는데 왜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술자리에서 사람들과 쓸데없는 잡담소리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신다면, 인터넷으로 혼자 있을 때 좋지 않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는 동안,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보고 계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면전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중생활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회칠한 무덤'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불신앙적 믿음생활인 것입니다. 2017년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신 불꽃같은 눈으로 우릴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주변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좌절시키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승리하는 두란노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1월 8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7. 1. 15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대 표 기 도 ----- 황 우경 집사 (다음주 : 박 순전 집사)

헌 금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13:22~30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말씀의 샘과 영성의 근원지인 두란노 교회
DURANNO CHURCH

두란노 교회

